

消費者保護運動을 위한 提言

編輯室

우리는 從前부터 國民의 絶對多數인 農家에서는 거의 모든 生活必須品인 食料品과 衣類等은 自給自足乃至는 가까지 지내는 사람들끼리 物物交換으로 生活를 營爲해오다가 日政下에서는 많은 工產品의 原料는 착취당하고 비싼값으로 그들이 만든 製品을 써오다가 日帝末期부터는 그나마 物資不足으로 統制가 甚하여, 一般消費層은 돈을 갖고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하고 商品을 사서 써오다가 解放後는 美軍의 進駐, 動亂으로 因한 工場破壞等으로 商品을 만들 수 없어서 많은 外國物資가 犯濫하여 無條件 外製商品만을 崇拜하면서 써오다가 5·16革命後 工業立國의 旗幟下에 많은 工場이 全國各地에 建設되면서부터 우리의 손으로 만든 各種 商品이 市場에 나돌게 되었을 뿐 아니라 外國에 輸出까지 하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 限量이 없으나 一部 商人中에는 人氣있는 外國商品이나 國產優良商品을 模倣, 偽造하여 不當利潤追求에 專念하는 바람에 한때 消費者가 物件을 살때 의례 “이것은 진짜냐”라고 反問하는 기현상을 빚기도 할 程度였다. 그러나 衣類와 기타 工產品은 且置하고라도 飲食物이나 藥品 및 化粧品의 경우는 잘못 쓰면 곧 生命에 危害를 끼치기 때문에 그대로 默過할 수는 없는 重大한 問題여서 保健犯罪特別團束法까지 制定公布되었음은 記憶에 새롭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消費者는 王이다”라는 스톤가면에 消費者保護運動이 先進諸國과 발마추어 일어났으나 이것 또한 一部 惡用하는 무리도 있어서 社會의 物議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던中 近來에는 直接 各家庭에서 살림을 맡아보는 主婦들로 囘친 여러 女性團體에서 이 問題를 慎重히 또한 徹底히 다루면서 果敢히 展開해나가고 있으므로 해서 女性團體이자 곧 消費者團體라는 代名詞가 붙게 되었음은 마음 든든한바가 있다. 그러나 消費者

란 家庭에서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主婦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商品을 만드는 企業家, 이들은 뒷받침해주고 監督하는 政府의 官吏, 教育者를 包含해서 國民全體가 對象일 것이므로 國民全體의 生命을 保護하고자하는 消費者保護運動이야말로 몇몇 女性團體에게만 맡겨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學國的으로 國民運動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多幸히 지난 72年度부터 學國的으로 벌리고 있는 새마을運動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있다고 보아 이 運動은 바야흐로 本軌道에 進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國家施策을 樹立實踐하는 政府에서 消費者保護에 關한 諸般施策을 講究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아직 消費者의 利益을 害치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남아있음은 기지의 事實일 것이다. 이와같은 情勢에 있어서는 앞으로 經濟各分野에 있어서나 國民福祉優先原則과 같이 消費者의 利益增進을 첫째로하는 施策을 展開시키고 더부러 從前의 消費者保護施策을 擴充 加速化시켜야 할 것이며 特히 아래와 같은데 留意하여 보다 活氣찬 運動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란다.

첫째 消費生活에 있어서 商品等이 消費者의 生命, 身體에 對해서 危害를 끼침이 없도록 消費者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할 것.

둘째 事業家나 企業家가 提供하는 各種 서비스, 販賣等의 分野에 있어서 消費者를 保護하는 方向으로 施策을 強化할 것.

셋째 消費者要請에 迅速正確히 對應할 수 있는 體制 即 企業家에 對抗할 수 있는 消費者들은 組織, 企業家들의 消費者指向體制 및 消費者行政機構 特히 各種 公共團體의 整備와 行政의 國際의 提携를 促進할 것.

이를 위하여 政府로서는 아래 事項을 考察하여 施

策을 講究實踐할 것은 勿論 立法, 豫算等 必要한 措置를 具體化하여 주기바라며 이에따른 몇가지를 添言하자면,

1. 安全確保對策의 強化
2. 서비스, 販賣等에 있어서 消費者保護施策強化.
3. 消費者保護體制의 整備.

다음은 消費者의 立場에서 消費生活을 向上시킨에 있어서는,

첫째 疑心스러운 物件은 쓰지말 것입니다.

法的으로는 許可되어 있더라도 아직도 不安스러운 것이 있고, 許容된 着色料는 정말로 安全한가 하면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며 또한 K.S. 規格은 民間에 委託管理로 마껴져 있지만 信用할 수 있겠는가 등의 疑問이 없는것은 아니다.

싸이크라메이트使用禁止措置以後 食品의 加工調理에 使用되는 添加物은 可及의 적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社會의 通念으로 바뀌어 天然食品絶贊論이 나왔지만 天然食品이라할지라도 또한 絶對安全하고 無害한가하면 그렇지 못하고 自然的으로 毒素을 含有한 食品이 우리 周圍에는 도사리고 있으니 消費者는 무엇을 먹어야 安全한가하는 點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神經過敏에 걸릴 地境이 되고말았다. 그러기에 政府에서는 보다 安全한 食品을 攝取하여 國民保健의 向上을 期하고자 이미 許可된 食品添加物等에 對하여 여러차례 點檢을 實施하여 發癌性, 催畸型性 등의 念慮가 있는 것은 이미 一部使用取消시킨바도 있다. 이와같은 社會의 背景속에서는 무엇보다도 疑心스러운 것은「쓰지말자」라고 밖에 더 할말이 없게 된다. 그러나 問題는 消費者의 不安이나 걱정을 具體的으로 어떻게 把握하여 處理할 것인가하는 點이며 法에 의한 監視體制의 強化와 相談窓口的 整備가 加一層 切實하다.

둘째 消費者의 立場을 굳건히 할 것.

앞으로는 苦衷處理에 있어서 消費者의 立場이 굳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從前에는 因果關係와 證據提示가 어려웠기때문에 患者의 呼訴가 結實을 보지 못했던 醫療事故의 取扱에 있어서도 새로운 角度에서 보도록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思料된다.

合成樹脂로 加工한 食器는 高溫下에서는 포루마린이 나오게되며 이의 上限은 60℃ 라고 하는 基準은 이것으로 充分한지 또는 女性들이 使用하는 루즈에 쓰이고 있는 着色料는 어떠한가하는 點을 考慮할 때 가령 당장에 生命에 影響은 없다고 치더라도 보다 좋은 食品을 識別해 낼수 있는 方法을 알으켜주고 試驗檢査해주는 公信力있는 機關이 더욱 整備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信賴할 수 있는 데이터에 根據를 두고 고충을 呼訴하여 行政의 基準이나 法律의 補完을 國家에 提起하려면 무엇보다도 消費者自身이 他山之石으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셋째 科學者는 實生活과 결부시켜라

被害가 사람에게 波及되기에 앞서 農藥, PCB等 生體에 異質的인 物質이 사람의 食生活에 뛰어들때 利點과 同時에 推定할 수 있는 不利點(危險)도 갖고 있게마련이어서 이를 消費者에게 알으켜주어야 할 義務가 學者들에게는 있다. 科學者들은 實驗室에만 ち박혀서 實驗에만 沒頭할 것이 아니라 實生活속에 과고 들어가 自己研究의 評價를 할 것이며 특히 安全性的 點檢에 있어서는 社會的인 責任을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消費者保護機構의 設立

企業家, 行政家, 學者들은 消費生活이라는 같은 立場에 있으므로 서로 자주 論議가 있어야겠고 그 結果를 行政에 反映시키는 機構가 切實히 要望된다. 健康이 尊重되고 安全이 保障되어야만 國力을 世界에 誇示할 수 있지않을까하는 點에서... (K)

